

신간소개 | Books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교보문고

새장에 갇힌 멜랑콜리(멕시코인의 정체성과 탈바꿈)

로제르 바르트라(지은이) | 김창민(옮긴이)

출판사: 그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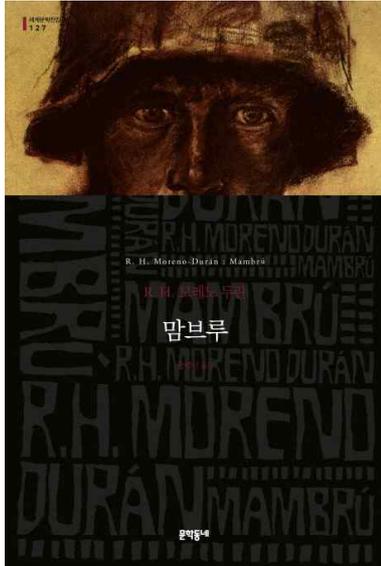
출판일: 2015-09-30

ISBN(13): 9788976822437

452쪽 | 220*150mm

“국민성 혹은 민족성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이 책 『새장에 갇힌 멜랑콜리』는 멕시코를 배경으로 하여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책이다. ‘상실된 에텐동산으로서의 농촌, 우수에 찬 춤곡들과 천천히 흐르는

시간, 열등감에 차 있으면서 폭력적인 도시의 가난뱅이들, 축제를 즐기면서도 특하면 싸우려 드는 메스티소, 과달루페 성모를 숭배하는 마초적 인물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순박하지만 공격적인 농민 출신 영웅들 ...’.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러한 이미지들이 바로 멕시코인들이 스스로를 규정하고 모델화하고 있는 ‘멕시코적인 것’, 멕시코의 ‘국민성’이다. 이 책의 저자인 로제르 바르트라는 이 ‘전형적인 멕시코인’의 이미지들이 어떤 실제의 원인을 갖는 실체라기보다, 20세기 초 멕시코혁명의 영향 속에서, 그리고 그 혁명이 요구한 ‘멕시코 영혼의 근대적 모습’을 그려낸 실증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지식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환상이나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전형적인 멕시코인’이라는 이미지는 인위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며 그 근원에는 착취를 합법화하기 위한 국가주의적 권력의 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교보문고

맘브루

R. H. 모레노 두란 (지은이) | 송병선 (옮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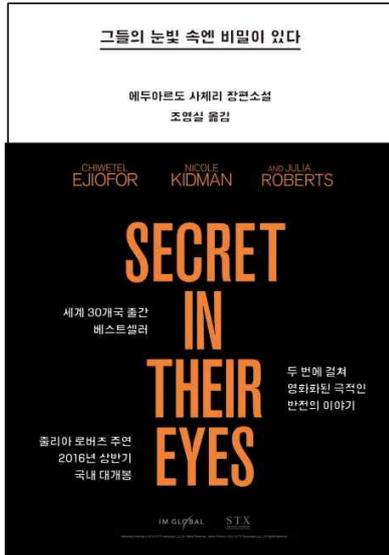
출판사: 문학동네

출판일: 2015-06-18

ISBN(13): 9788954636674

452쪽 | 203*137mm

라틴아메리카 포스트모던 문학을 대표하는 콜롬비아 작가 라파엘 움베르토 모레노 두란의 대표작 『맘브루』가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27번으로 출간되었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작가인 모레노 두란은 붐 세대 이후 콜롬비아 문학의 대표 주자로, 오늘날 콜롬비아 현대문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다. 아이러니와 패러디, 언어유희, 상호텍스트성 등을 토대로 한 문학적 유희를 통해 기존의 담론을 해체하는 포스트모던 역사 소설들을 발표해왔다. 이러한 그의 작품 세계가 여지없이 드러난 『맘브루』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콜롬비아 용사들의 고백을 통해 새로운 역사의식을 드러내는 소설로, 공식 역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실은 역사와 양립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역사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거부하고 이전 세대의 역사 소설에서 벗어난 글쓰기로 새로운 진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라틴아메리카 포스트모던 문학을 대표하는 모레노 두란의 지향점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바라본 한국전쟁의 모습이 콜롬비아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새롭게 비춰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또다른 의미를 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교보문고

그들의 눈빛 속엔 비밀이 있다

에두아르도 사체리 (지은이) | 조영실 (옮긴이)

출판사: 홍시커뮤니케이션

출판일: 2015-1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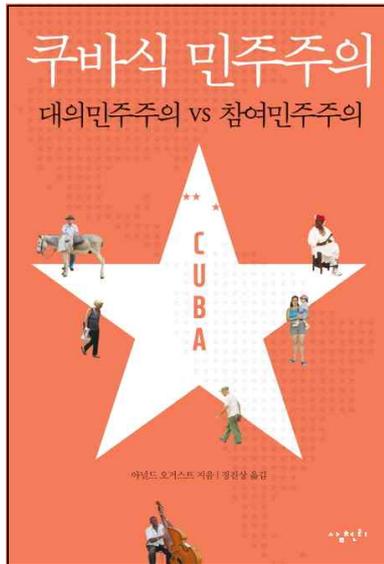
ISBN(13): 9791186198117

352쪽 | 145*210mm

『그들의 눈빛 속엔 비밀이 있다』는 영화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의 원작 소설이다. 작가 에두아르도 사체리는 호세 캄파넬라 감독과 함께 영화의 각색자로 직접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그 결과 영화는 2010년 아카데미에서 「하얀 리본」, 「

예언자」 등 쟁쟁한 경쟁 작품을 제치고 최우수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다. 아르헨티나 영화 역사상 최다 관객 기록을 세우기도 한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에 대해 평론가 마리아 델가도는 「사이트 앤 사운드」에 “일반적인 호응도를 넘어서는 사회적 반향을 보여 준다.”고 썼다. 국내에서도 영화감독 민규동, 드라마 작가 노희경의 상찬 속에 더욱 화제가 되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가장 뜨거운 작가로 손꼽히는 에두아르도 사체리. 부에노스아이레스 태생의 사체리는 형사법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선배들에게 들은 에피소드(복역 중인 범죄자가 정치범 사면자 명단에 포함되어 출소한 일)에서 착안해 이 소설을 썼다. 군사정권들의 무용극으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1970년대 아르헨티나가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이다. 사체리는 저자의 말에서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허구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썼다. 사체리는 역사의 어두운 시기를 선택해 바닥까지 파고든다. 실로 오랜만에 깊이와 재미를 갖춘 장편소설의 등장을 문학 독자라면 주목해 볼 만하다.



쿠바식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VS 참여민주주의)

아널드 오거스트 (지은이) | 정진상 (옮긴이)

출판사: 삼천리

출판일: 2015-09-18

ISBN(13): 9788994898346

440쪽 | 152*225mm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교보문고

이 책은 2011-2012년 가장 최근에 전개된 쿠바공산당, 선거과정, 평상시 정치활동을 현지 참여관찰을 통해 정치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쿠바공산당 당대회와 전국회의 과정, 4년마다 치

르는 쿠바 총선거의 과정과 절차를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민중 권력국가의회’와 시의회, 그리고 민중평의회의 정치활동을 분석하면서 선거 국면뿐 아니라 평상시에 민중의 참여와 개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준다. 현대 쿠바 정치시스템에 대한 이런 분석은 쿠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거나 ‘공산당 일당독재’라는 식으로 왜곡된 정보를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실과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학생운동 경험을 가진 비판적 언론인이자 학자로서 지은이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쿠바에서 맺은 두터운 인맥을 활용하고 참여관찰과 인터뷰, 생생한 자료를 동원하여 내부 정치 시스템을 분석한 점이 돋보인다. 지은이는 쿠바식 참여민주주의의 장점을 부각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지만, 그 결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도 인색하지 않다. 다만, 외부 관찰자의 시각보다는 쿠바 내부의 학계와 언론의 비판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언급한 쿠바의 사회과학자들과 언론인,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참여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쿠바는 여전히 또 다른 민주화 국면을 겪고 있고 새로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다.



쿠바, 혁명보다 뜨겁고 천국보다 낮선

정승구 (지은이)

출판사: 아카넷

출판일: 2015-06-15

ISBN(13): 9788957334317

480쪽 | 146*219mm

쿠바가 가르쳐주는 행복의 기술

정승구 영화감독이 크리에이티브 논픽션으로 그리는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쿠바의 마지막 모습!

누비고 다루고 삼키고 아무런의 완성한 '진짜' 쿠바!
정승구 감독은 사촌일권 과고들이 섬의 신비로운 신장을 그려내었다.
쿠바다운이란 무엇인가에 걸출한, 원년의 빛은 소용주이자 반달의 관아원에게서!
그 중심엔 '다름'을 전하게 있을 때다.

- 김태환 소개

아카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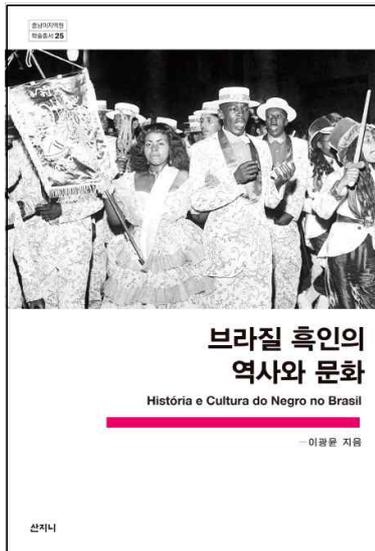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교보문고

지난 7월 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쿠바와의 국교를 재개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국교 정상화 합의 이후 한국 제품의 수입을 원하는 쿠바와 시장 확대를 바라는 한국의 외교관계 수립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런 시점에서

쿠바에 관한 가장 최근의 정보와 분위기를 담은 영화감독 정승구의 『쿠바, 혁명보다 뜨겁고 천국보다 낮선』의 출간은 주목할 만하다.

원래 쿠바에서는 취재 비자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취재 활동도 허락되지 않으며, 취재 비자를 발급 받는다 하더라도 쿠바 공무원의 관리 하에 취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가을, 저자는 취재 비자를 발급받는 대신 쿠바의 인맥을 통해 사람들을 만날 계획을 세우고 쿠바로 떠났다. 그렇게 현지인들과 좌충우돌 부대끼며 베일에 싸인 쿠바 사회의 이모저모를 체험했다.

체 게바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외로 사실의 일부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고, 쿠바의 건축물을 통해 행복의 의미와 미학을 탐색하며 쿠바 문화의 속살과 다양성을 위트 있게 드러낸다. 영화감독 특유의 과감한 클로즈업과 롱샷으로 찍은 사진들은 쿠바를 입체적으로 드러내주며, 책의 내용을 한층 더 실감나게 전달해준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교보문고

브라질 흑인의 역사와 문화

이광윤 (지은이)

출판사: 산지니

출판일: 2015-05-31

ISBN(13): 9788965452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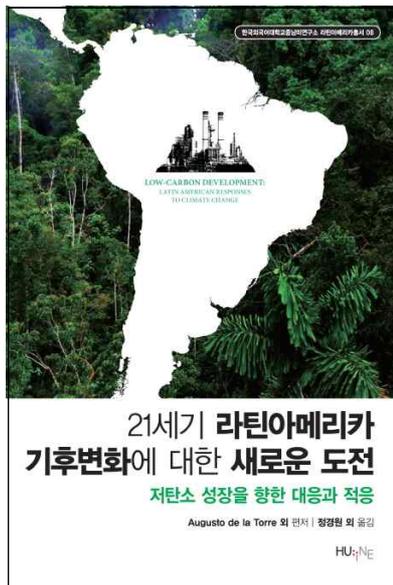
268쪽 | 225*152mm

축구, 삼바, 커피. 우리가 ‘브라질’ 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문화나 상품에는 모두 브라질 흑인의 삶이 담겨 있다. 펠레나 네이마르 같은 축구스타들은 흑인의 후손이고, 삼바는 1910년대에 시작된 흑인 민중 예술이다. 그리고 대서양 노예무역이 활발

했던 16-19세기, 브라질로 팔려 온 아프리카 흑인들 중 다수는 커피농장에서 착취되었다.

그러나 2014년 월드컵의 열기, 그리고 2016년 올림픽 개최를 앞둔 브라질의 번쩍이는 표면 아래 꿈틀거리는 역사와 문화는 우리에게 생소하기만 하다.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출간된 브라질 관련 서적 중, 브라질의 흑인 인구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없었다.

브라질의 탄생과 번영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면서도 인종차별 때문에 주변부로 밀려난 브라질 흑인들. 그래서 『브라질 흑인의 역사와 문화』는 브라질의 핵심을 보여주는 창이다. 브라질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인종의 나라로 알려진 브라질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담론과 현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교보문고

21세기 라틴아메리카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
저탄소 성장을 향한 대응과 적응
Augusto de la Torre 외 편자 | 정경원 외 옮김
HUNNED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그동안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온 농업 및 산림부문에서의 적응활동과 수자원 및 재해관리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을 지원해 온 국제협력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라틴아메리카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

Augusto De La Torre , Pablo Fajnzylber, John Nash (지은이) | 정경원, 김유경, 장수환, 하상섭 (옮긴이)

출판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15-06-30

ISBN(13): 9788974640026

448쪽 | 224*152mm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그동안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온 농업 및 산림부문에서의 적응활동과 수자원 및 재해관리활동에

라틴아메리카 대기환경과 기후변화

정경원 , 하상섭, 장수환, 박일수, 장유운 (지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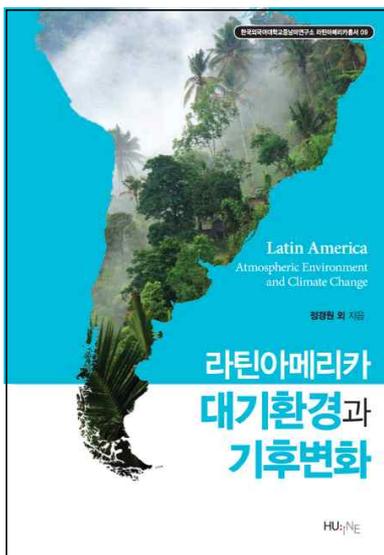
출판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15-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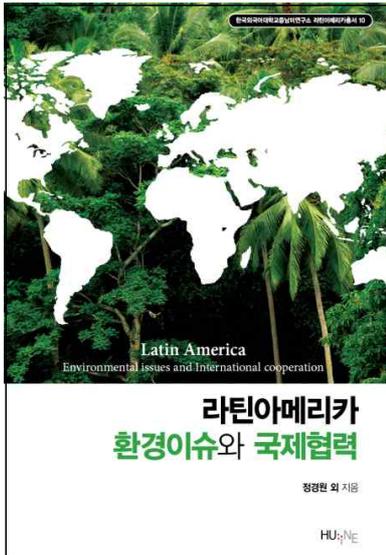
ISBN(13): 9788974640033

240쪽 | 248*176mm

이 책은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에서 대기환경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 녹색 융합센터에서 수행된 7개의 논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교보문고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교보문고

라틴아메리카 환경이슈와 국제협력

정경원 , 강민욱, 강성주, 강성지, 김경춘, 김은중 외 23명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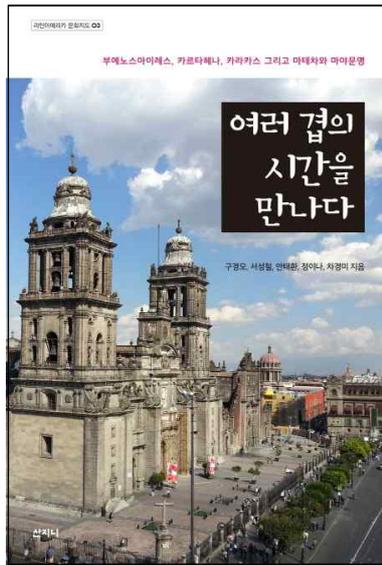
출판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15-06-30

ISBN(13): 9788974640057

432쪽 | 224*152mm

이 책은 한·중남미 녹색 융합센터가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 자료와 향후 양 지역의 국제협력에 정확한 방향을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교보문고

여러 겹의 시간을 만나다

구경모 , 서성철, 안태환, 정이나, 차경미 지음

출판사: 산지니

출판일: 2015-05-31

ISBN(13): 9788965452966

206쪽 | 225*152mm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양서 『여러 겹의 시간을 만나다』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현재의 라틴 아메리카를 알고자 한다면 필수적인 역사적 내용을 바탕으로 남미의 독특한 문화들을 서술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카르타헤나, 카라카스 등 대표적인 도시들과 마야, 마테차와 같은 친숙한 소재들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사와 문화를 만나볼 수 있다.